

보성군, “뽕에서 놀자!” 2025 보성벌교 갯벌축제 개최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9월 20일 벌교읍 장양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2025 보성벌교 갯벌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뽕에서 놀자!'라는 주제로, 보성벌교갯벌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길두)가 주최·주관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보성벌교갯벌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뽕배어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가족 친화적 생태 문화 축제로 추진된다.

축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서는 벌교갯벌의 생태적 상징성을 담은 '갯대종 알락꼬리마도요' 선포식이 열려, 생태 보호의 공감성을 함께 나누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제10회 레저뽕배 대회다. 뽕배는 갯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전통 어업 도구다. 뽕배를 직접 타고 갯벌을 가르며 달려보는 경험은 아이들에

9월 20일 '레저뽕배대회' '벌교갯벌길 생태견기대회' 등 풍성 뽕배 타고, 갯벌 달리고! 온 가족 함께하는 생태 체험 한마당

게 호모성을, 어른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벌교갯벌길 생태견기대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장양어촌체험마을 주무대에서 출발해 벌교생태공원까지 왕복 7.4km 코스로, 쟁풍어코스(3.6km)와 마도요코스(7.4km)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현재 보성군이 추진 중인 '벌교-장도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494억 원), '보성 벌교갯벌 생태계 복원사업'(70억 원)과 연계돼, 철새와 다양한 갯벌 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블루관광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벌교갯벌 레저뽕배대회'와 '벌교갯벌길 생태견기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8일까지 보성군청 누리집 네이버폼을 통해 가능하며, 대회 당일인 9월 20일에는 오전 10시 30분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또한, 벌교갯벌 홍보 전시관과 바닷새 사진전 등 교육적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체험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갯벌 풋살대회, 물고기 맨손잡기, 뽕배 체험존, 숯불구이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하루 종일 갯벌에서 뛰고 구르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은 도시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2025 보성벌교갯벌축제는 갯벌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



키는 자리이자, 지역의 생명력과 생태적 즐거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마음껏 뛰놀고 배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장흥군, '탄탄한 미래 설계'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 새 정부 방향에 맞춰 신규·현안사업 중점 논의

장흥군은 2026년 전략적인 업무추진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신규·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부서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104개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156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부합하는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 △상징형 웰니스 관광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첨단 스마트 양식장 조성 △원격 및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됐다.

향후 사업 실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등 논리 강화, 사업 내용 보완 등을 통해 국비 건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국·도비 및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총 167건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기준 2,352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기록원 건립 유치(645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350억 원) △부산 금지지구 다목적 농촌융수개발사업(190억 원) △희진면 행복마을 조성(7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4억 원) 등이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할 방침이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기관평가 발표에 대비해서는 주기적인 추진 현황 점검과 평가 항목을 고려한 업무추진을 장려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가 고심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며, "내년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장흥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전남 완도군이 2026년도에 개최되는 '제14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바다 식목일(5월 10일)은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바다 사막화 등 문제를 알리고 바다 숲 조성의 필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1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2014년 '제2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12년 만에 행사를 또 개최하게 됐다.

'제14회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일정

2026년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연계 개최

협의 중)는 2026년 5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바다 식목일 기념행사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이 주최하며 한국수산자원공단 주관으로 개최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 환경보호 중요성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두 행

사를 연계하여 개최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경바다, 해양 생태 도시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효성그룹 등과 협력하여 신지면 해역에 1.59㎢ 규모의 해조류·해초

류(잡곡) 복합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완도를 장조리 해역에서 잘피 이식, 해안 정화 활동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군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블루카본(바다 숲) 발굴, 국민 참여형 바다 숲 조성 사업을 통해 연안 생태계 중 다양성, 해조류 생태량 증가에 힘을 쏟았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광군, 천년사찰 불갑사 명상사업 추진

9월 26일 상사화축제 기간부터 '꽃길만 걸어요' 걷기명상 등 운영

영광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3까지 불갑사에서 「2025년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년사찰 세계명상관광 템플스테이는 전남의 대표적인 천년고찰을 활용해 '쉼·치유' 이미지를 강화하고, 휴식이 필요한 국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명상관광을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불갑사가 선정되어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불갑사 명상 프로그램은 당일행과 1박 2일행으로 나뉜다. 당일행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심호흡 명상 ▲'꽃길만 걸어요' 걷기명상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1박 2일 프로그램은 ▲호흡 명상 ▲차와 함께하는 감사 명상 등 다채롭게 마련되었으며, 참가비는 5만 원이다. 신

청은 전화 (010-8631-1080) 또는 '템플스테이' 공식 누리집 (https://www.templestay.com/)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25회를 맞는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불갑산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브래드 이발소 & 도레미 프렌즈 상이롱쇼', 개막식 축하공연 '신호범의 상사화 in Love',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김재호'를 만날 수 있는 홍보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야간 이용자를 위해 감성 조명존을 군락지에 설치하고, 영광터미널↔축제장 구간을 운행하는 야간 셔틀버스(16:30~22:00)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즐거움과 편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나주시,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1억 원 확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전달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 재정 전문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공제회에 2024년도에 납부

한 재해복구 부담금액 중 약 30%를 지원 받았다.

시는 화재와 자연재해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했으며 지난해에 납부한 부담금 중 일부 지원받은 것이다.

정승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감사는 "공제회 지원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주민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는 시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 중대한 재난이었다"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재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 보건의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존 캠페인

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각종 질병 예방 도모

곡성군 보건의로원은 지난 9일 곡성군 청 1층 로비에서 직원과 민원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40세대 청장년층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존 운영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로 우리 모두 건강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히 직장인 청장년층이 근무지에서 손쉽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을 통해 개인별 수치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을 체감하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장인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곡성군 보건의로원은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9월 15일(월) 보건의로원 내원자를 대상으로 '레드서클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젊은 직장인도 혈관 건강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 멋진 나를
더 크게 웃을 것
공적으로 맞물려 일상을
마음이 편해진다면
밋장이나 뿜겨,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